

이미지가 경쟁력인 시대인데...

드라마 『앵그리 맘』에 투영된 건설산업 이미지

장철기 | 한남대학교 교수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간혹 극적 재미를 위해 역사적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가미해서 제작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산업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타난다. TV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특정 산업의 특성을 왜곡 혹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실제 산업의 모습과 맞든 다르든 간에 대중들은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대중매체에 투영된 특정 산업에 대한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 해당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그릇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고착될 우려가 있다.

건설산업, 주로 부정적 모습만 대중들에 비춰져

건설산업을 소재로 한, 혹은 건설 관련 관계자

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건설업 경영진은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로비로 일을 만들고, 비리를 일삼는 인물로 그려지고, 건설 기술자들은 욕 잘하고 지지분하고 술 잘 먹는 인물로 그려진다. 언론 보도상의 건설 관련 기사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유독 건설산업에 더 집중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국가 재건에 앞장서 왔고, 지난 50여 년간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해외건설을 통한 외화 획득,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산업 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물론 담합, 정경 유착 등 건설 비리나 안전사고, 부실 공사 등 건설산업의 부



『앵그리 맘』은 학교 폭력과 사학 재단의 비리를 주 내용으로 하지만, 사학 재단의 비리에 건설사업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었다.

정적 요인도 있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흐려지고, 주로 부정적 이미지만 대중들에게 투영되고 있다.

드라마 『앵그리 맘』에 투영된 건설 이미지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MBC를 통해 방영된 16부작 드라마 『앵그리 맘』에 나타난 건설산업 혹은 건설사업 참여자의 모습을 살펴보자.

『앵그리 맘』은 정치에 관심 없고 경제에 무지한 엄마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서, 학교 폭력과 사학 비리라는 문제를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엄마, 폭력과 비리가 난무하

는 세상에 속수무책 아이들을 내보낸 많은 부모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다소 건설과 관련 없는 드라마로 생각될 수 있으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 비리가 난무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 건설업이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

드라마의 전반부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인공 강자는 최근 자신을 자꾸만 괴롭히는 딸(아란) 때문에 속상하다. 학교 폭력의 후유증으로 입원까지 하는 딸을 위해 엄마는 딸아이의 학교에 입학한다. 학교에서 본 딸의 책상에 적힌 악의적인 낙서를 보고 화가 난 엄마가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딸과의 관계도 힘들어진다. 딸아이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학교 재단의 비리도 파헤치게 된다.

건설 이야기 1 2 3

건설업과 관련된 얘기는 극의 후반부에 학교 재단의 비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건설사업의 발주자인 재단 측과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는 학교 별관 공사를 함께 있어서 부실 공사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다치게 되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지만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공사 과정 중에 발주자인 재단 측은 내력벽을 없애는 등 무리한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별관 공사를 위해 책정된 공사 대금 30억원 중 정치 자금으로 활용될 10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자재비를 더 낮추기를 요구한다. 무리하게 줄인 공사비로 인해 건설업체는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불량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적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임금 채

불로 인해 자재를 빼돌리는 등 공사는 파행적으로 수행된다.

그 결과 완공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벽체의 균열이 발생하고, 문이 열리지 않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펜을 놓쳤을 때 펜이 굴러가는 등 완공된 지 2~3일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에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급식실 천장 함몰로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 현상이 일어나며,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심각한 사태임을 지각한 건설업체 상무는 곧바로 회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아이들의 대피를 촉구하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결국 완공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은 붕괴되고, 이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다. 건물 붕괴로 인해 사망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지만, 공사 및 학교 관계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앵그리 맘」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해 학교 건물이 붕괴되어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 참상이 그려진다.

아울러 이 드라마에서는 건설사업 참여자의 모습도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먼저, 건설사업의 발주자인 명성재단 관계자들은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 공사의 발주자 역할을 하는 명성재단 법인 기획실장은 학교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 대금을 이용한다.

이러한 비자금 조성에 별관 공사의 시공사인 명성건설 사장은 적극 협조한다. 그는 20대 때 지방 조폭의 행동대장으로 시작해 서울에 진출하여 삼류 조폭으로 건설 관련 용역 일을 하다가 회장의 눈에 들어 명성건설 바지사장으로 이용되는 인물로서, 폭력적이며 권력에 빌붙어 연명하는 비겁하고 처세에 강한 인물로 그려진다. 로비를 위한 불법 자금 세탁이 필요할 때마다 각종 부실 날림 공사에 동원되어 회장의 배를 불러주고 콩고물을 받아먹고 산다.

반면, 이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으로 등장하는 교사는 최고 명문대를 차석으로 졸업한 인물로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고 믿고 사람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의심할 줄 모르며 폭력과 욕설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앞서의 건설사업 관계자와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건설업 이미지는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정 산업 왜곡시 반론 기회 주어져야

드라마 『앵그리 맘』에서는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소홀한 관리로 죄 없는 희

생자들이 발생하는 참상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돈 등을 중시하는 주체로 그려졌고, 건설업체는 발주자와 야합하여 로비, 부실 공사, 기자 입막음 등을 자행하는 악덕 기업의 표상이 되었다. 건설산업의 역할과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었고, 부정적인 모습은 확대되어 그려졌다. 문제는 드라마 속에 그려진 특정 산업의 모습이 시청자에게는 화면에 비춰진 대로 이미지화되어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미지란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중 신념, 태도, 의도를 형성하는 평가 기준에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해당 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자긍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청년층이 건설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든다. 특히, 미래 건설산업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우수 인력 유입에 있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가 반드시 사실만을 다룰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왜곡 혹은 부정적인 면을 확대 반영한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CERIK